



## 탄탄한 기술력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 생기원 연구원 창업

최근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연구원 창업.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지원이 연구원 창업을 이끌고 있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연구원 창업이 일반 창업에 비해 생존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ICT섬유의류그룹 이권선 선임연구원의 (주)셀바이오후면텍 창업 이야기를 통해 연구원 창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 연구원 창업이란?

‘연구원 창업’이란 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 중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기술을 직접 상품화하여 창업하는 제도이다.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교수·연구원 창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39.5%를 차지할 만큼 활기를 띄었으나, 이후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더니 2011년에는 8.55%까지 떨어졌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창조경제기조와 함께 최근 연구원 창업 제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생기원은 지난 1997년 연구원 창업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3년 이상의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원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생기원 연구원 창업은 겸직과 휴직 창업으로 구분되며 창업일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창업 전 1년 동안 창업예비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되어 연구원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생기원에는 5명의 연구원이 창업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생기원이 워낙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